육체스러움을 빠져나온 마음으로

(에스라 2:1~70)

1.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놓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2.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왜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7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육체스러움을 빠져나온 마음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육체스러움을 빠져나온 마음으로'
우리가 'ㅇㅇ스럽다'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걱정스럽다, 어른스럽다, 여성스럽다, 촌스럽다 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연관되어 'ㅇㅇ스럽다'라는 접미사를 사용한다면 어떤 사용법이 있을까요?
'마음이 육체스럽다'라는 말을 만들어 본다면 육체 연관성에 대해서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 연관성은 육체를 중심으로 관계가 성립되는 모든 대상들과의 연관성을 뜻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호흡하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옷을 입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자매가 있고 직장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전부 육체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육체스럽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촌스럽다고 하면 행색에서 시골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스럽다는 말은 마음이 육체 연관성 안에서 만족함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돈은 육체 연관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돈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말썽만 피우고 공부를 못해서 걱정합니다. 이것도 육체 연관성 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을 육체티가 나고 육체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육체가 된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기도 합

니다. 혼이 나와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육체와의 연관성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무렵에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구절이 나오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이 육체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 연관성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려 할 때에 마음은 육체티가 나고 육체스럽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육체스러운 것입니다. 영적인 촌스러움이 육체티이고 육체스러움입니다.
우리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 자리인데 어제 회식 자리에서 김 부장님이 저질렀던 실수가 생각나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마음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사장님한테 호통을 듣는 순간에도 서울대에 합격한 아들 생각을 했더니 웃음이 나옵니다. 이 순간에도 마음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빠져나갈 수 있음을 함축해서 '육체스러움을 빠져나온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차 포로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사만 구천팔백구십칠 명으로서 거의 오만 명에 달합니다. 2차 때에는 불과 만 명 정도가 돌아오고 3차 때에는 기록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라는 2차 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입니다. 에스라는 2차에 귀환하여 1차와 2차 때에 귀환한 사람들의 상황을 정리하여 3차 귀환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때에 쓰인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 명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앞부분에는 유다백성들의 명단이 족보별로 나오고 사천여명의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몇 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과 솔로몬 신복의 후손들과 족보가 불명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디님 사람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으므로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속임수가 드러나자 잘못을 시인하고 기브온 족속은 평생 레위인을 도우며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 긷는 일을 맡아하는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 외에 전쟁포로들이 유다 땅에서 거하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또한 55절에 솔로몬의 신복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솔로몬 때에 일어난 전쟁포로로 특

별한 재능을 가졌던 이들을 솔로몬이 불러들여서 등용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솔로몬의 신복이 되었던 사람들의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또한 59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조상과 가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귀환을 했습니다.
앞장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공포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북 왕국 이스라엘은 망해서 앗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후였고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대상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1차에 불과 오만 명이 돌아왔고 2차에 만 명 3차를 합해 그 정도 숫자가 가세한 것입니다.
더구나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속해있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된 성전을 생활화하겠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생활화의 의미는 바로 육체 연관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스러움을 벗어나는 것이고 육체티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 연관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부모 자식 배우자 직장동료 친구 등)이나 사물들(돈 집 옷 음식 자동차 백 등)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곧 육체티가 나는 것이고 육체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가담하고 성전을 생활화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인데 성전을 생활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사장님 앞에서 야단을 맞는 상황에서도 서울대에 들어간 아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그 상황을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성전 생활화를 통하여 육체 연관성을 빠져나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스럽고 하늘티가 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스러움 육체티를 벗어버린 자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촌스러움과 촌티를 벗어내듯이 영적인 촌스러움과 촌티인 육체 연관성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는 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벗어남은 성전을 생활화함으로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존재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이유도 마음이 육체스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연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백인 흑인 황인종이 있는데 그에 연관되는 일에 의해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국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북한에 태어났든지 일본에 태어났든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것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의 완성인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육체의 연관성을 벗어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늘스러움을 되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잘생긴 사람들이 있고 못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마음이 벗어버리고 빠져나와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 육신은 벗어버려야 될 대상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마음의 자격과 가치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 외모의 가치로 인해 생겨난 부가적인 육체 연관성을 벗어버리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육체 연관성을 벗어버리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육체 연관성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하늘스럽기가 쉽습니다.

예전에는 목사임에도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권위가 있고 아우라가 있어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잘나 보이는 외형들이 모두 육체 연관성임을 볼 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될 대상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형교회의 목사님들만 소중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위험합니다. 예배당이 화려하고 부흥하는 것이 다 육체 연관성인데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은 육체 연관성을 빠져 나와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음이 유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귀족들보다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훨씬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육체 연관성을 벗어나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티를 벗어나는 것이고 영적 촌티를 벗어나야 합니다. 육체 연관성에서 사람과 사물들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촌티를 벗어나는 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이 세상적인 육체 연관성이 극히 빈약한 것입니다. 마음의 육체스러움이 약한 것입니다.

창녀는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육체스러움이 약한 것은 육체 연관성

안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 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창녀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육체의 연관성을 빠져나오는 것이 고귀하게 존경받던 대제사장보다 훨씬 쉬웠고 빨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기가 막힌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다시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은 느디님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들은 육체 연관성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성전건축을 위해서 포로귀환 합니다. 이들은 차라리 돌아오지 않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또 종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노예 됨은 육체 연관성 안에 포함된 것이므로 대제장이 되어서 기뻐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전의 노예로 사는 것도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어차피 육체스러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성전 생활화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솔로몬의 신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발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서 영적 촌티인 육체티와 육체스러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육체티가 나고 육체스러움이 발동되려 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육체 연관성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육체 연관성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늘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육체 연관성의 영역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전 생활화의 완성본인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육체스러움 육체티를 벗어버리고 하늘스러움

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육체 연관성의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놀라운 복지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